

2010 건축 법령집 판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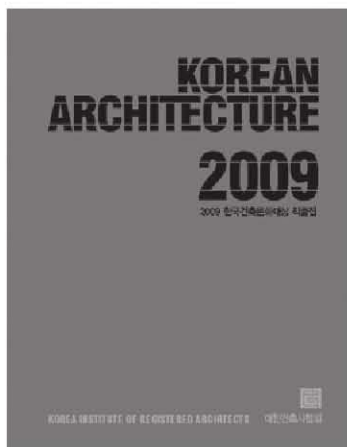
우리협회는 건축업무를 능률적이고 신속하게 수행하는데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건축법·시행령·시행규칙을 3단 대조식으로 편집하고, 건축관련법령 및 기준을 담아 「2010 건축법령집」을 발간·보급한다.

발송료를 포함하여 1만 5천원에 판매하며, 구매희망자는 입금 후 입금증과 구매신청서(협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를 팩스(02-3415-6899)로 보내면 된다.

- 문의 :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제도팀, (02-3415-6834)

작품집

「KOREAN ARCHITECTURE 2009」 판매



대한건축사협회는 2009년 건축문화대상 및 작품들을 집대성한 「Korean Architecture 2009」를 발간하고, 판매한다.

일반인은 5만원이며, 사진신청자 및 회원에 한해 3만 5천원에 판매한다.

- 문의 : 대한건축사협회 문화홍보실, 02-3415-6862~4

건축계소식

‘세계여성건축가서울대회’ 성료



한국여성건축가협회(회장 오경은)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공식 후원하는 ‘2010 세계여성건축가서울대회(2010 UIFA Seoul)’가 지난 10월 4일 건축사회관에서의 개막식과 함께 5일간 서울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개최됐다.

10월 4일 개막식에는 세계여성건축가협회 솔랑즈 회장, 한국여성건축가협회 오경은 회장, 우리협회 최영집 회장을 비롯해 80여개국에서 온 200여명의 여성건축사들이 참석했다.

개회사에서 솔랑즈 회장은 “오랜된 문화유산과 역사적 재발견을 할 수 있는 한국에서 여러분을 만나게 되어 기쁘다. 이번 대회는 우리의 유산의 보전과 특별함을 배우는 기회가 될 것이다.”고 밝혔다.

세계여성건축가협회(UIFA/The International Union of Women Architect)는 1963년 프랑스 건축가 솔랑주에 의해 창립됐으며 아시아, 유럽, 미국 등 80여 개국의 건축가, 도시계획가, 인테리어 디자이너, 조경 디자이너, 기타 환경관련 전문가, 연구원,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여성건축가들의 연합이다. 지난 1963년 제1회 프랑스 파리대회를 시작으로 3년에 한 번씩 개최되고 있는데, 한국은 제

6회 프랑스 파리대회(1983년)에 처음 참가한 이후 꾸준히 활동을 해 왔으며 2007년 제15회 루마니아 부카레스트대회에서 제16회 서울대회가 결정됐다.

2010 세계여성건축가서울대회는 우리가 살아가는 지구의 지속 가능한 건축 및 도시환경의 발전을 위해 ‘Green Environment’라는 대주제를 택하고 ‘전통에서의 Green’, ‘친환경 주거’ 그리고 ‘여성친화도시와 도시재생’이라는 3가지 소주제로 진행됐다. 또한 이번 대회 기간 동안 열리는 6개의 세션에는 총 3가지의 소주제를 기본으로 해외 16명, 국내 20명의 유망 여성건축가들의 심도 깊은 주제발표가 있었다.

2010 대전건축문화제 발대식 개최



‘2010 대전건축문화제’ 발대식이 지난 9월 15일 상절리제웨딩홀에서 건축사, 교수, 건설·시민·환경단체장, 지역인사 및 관계공무원들의 참여 속에 개최됐다.

대전광역시 주최로 건축3단체인 대전광역시건축사회, 대전광역시건축가협회, 대한건축학회대전충남지회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2010대전건축문화제’는 ‘시민과 함께하는 건축마당’이라는 주제로 오는 10월 14일부터 10월 19일까지 6일간 대전광역시청에서 개최됐다.

금년 2회째를 맞이하는 대전건축문화제는 1회 때보다 더 규모가 크고 다양한 행사로 기획돼 아동·청소년들에게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대전광역시교육청 후원 ‘글짓기, 그림그리기, 친환경건축모형대회’의 행사와 일반시민 참여의 ‘시민사진전’, 주부들을 대상으로 하여 생각을 현실로 바꾸는 ‘주방설계공모전’, 친환경건축에 대한

견학체험의 장을 만들어 시민과 함께 건축 문화를 공유하며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미래의 건축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느낄 수 있도록 한 '생태건축투어' 등이 열렸다.

이외에도 '독일친환경 Landscape특별전', '공공디자인사회봉사', '아파트특별전 시회', '학술세미나', '초청강연회' 등의 행사들이 동시에 열렸으며, 대전광역시청 관련 부서들도 '공공디자인공모전', '옥외광고대상전', '도시디자인포럼' 등을 통한 행사로 시민들에게 다양한 건축문화 서비스가 제공됐다.

제3회 심원건축학술상 공모

심원문화사업회가 주최하고 (주)엠에스 오토텍이 후원하는 '심원건축학술상 (Simwon Architectural Awards for Academic Researcher)'이 2차 응모작을 접수한다.

2차 응모작은 10월 1일부터 오는 11월 10일까지 접수하며, 추천작은 2011년 1월 15일 '건축리포트 <와이드>' 11년 1-2월호 지면에 발표할 예정이다.

심원건축학술상은 1년 이내 단행본으로 출판이 가능한 완성된 연구 성과물로서 아직 발표되지 않은 원고(심사 종이거나 심사를 마친 학위논문은 미 발표작으로 간주함)를 응모 받아 그 중 매년 1편의 당선작을 선정하며, 당선작에 대하여는 단행본 출간과 저술지원비를 후원한다.

심원문화사업회는 젊은 나이에 요절한 건축가를 통하여 건축의 세계를 이해하고 애정을 갖게 된 기업가가 그와의 인연을 회억하며 건축의 인문적 토양을 배양하기 위하여 만든 후원회로서, 건축 역사와 이론, 건축미학과 비평 분야의 미래가 촉망되는 유망한 신진학자 및 예비 저술가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마련됐다.

- 당선작 : 1편(상패 및 상금 500만원과 단행본 출간 및 인쇄 지급)
- 응모자격 : 내, 외국인 제한 없음
- 응모분야 : 건축역사, 건축이론, 건축

미학, 건축비평 등 건축인문학 분야에 한함

(단, 외국국적 보유자인 경우 '한국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한함)

- 당선작 발표 : 2011년 5월 15일(건축리포트 <와이드> 11년 5-6월호 지면)
- 문의 : 심원문화사업회, 02-2235-1960

AURI, '우리 공동주택 디자인 혁신은 가능한가?' 심포지엄 개최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오는 10월 28일 오후 2시 aT센터 대회의실에서 '현행제도 안에서 우리 공동주택 디자인 혁신은 가능한가?'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우리 제도상에 공동주택을 경직되게 하는 내용은 무엇인지, 우리 제도가 외국의 그것과 다른 점은 무엇인지, 우리 제도를 어떻게 바꾸어야 우리의 공동주택이 형식적인 변화를 가질 수 있는지를 논의하게 된다.

주제 발표에서는 '현행제도에서 공동주택 디자인의 한계'에 대해 최두호 토목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가, '다양성을 존중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제'에 대해 윤철재 니켈세케이 한국지사 부지사장과 정영욱 삼성건설 주택사업본부 전략설계실 과장이, '공동주택 디자인 결정요인

이 되는 제도의 개선방향'에 대해 김진옥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부연구위원이 발표한다. 전체토론의 좌장은 최명철(주.단우 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이다.

- 문의 : 건축도시공간연구소 031-478-9656

오토데스크 코리아, '제조산업을 위한 오토데스크 유저 컨퍼런스 2010' 개최

오토데스크 코리아(대표이사 김동식)는 지난 10월 5일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500여명의 제조업 고객사와 협력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제조산업을 위한 오토데스크 유저 컨퍼런스 2010'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3D를 넘어 디지털 프로토타이핑의 세계로 안내합니다(Beyond 3D: Digital Prototyping)' 주제로 열린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단순히 오토데스크 솔루션을 소개하는 취지를 넘어 오토데스크 유저들을 위한 자리로서 기계설계, 제조, 산업디자인 분야의 다양한 고객사들이 국내의 유명 전문 디자이너들의 강연과 함께, 자동차, 기계제조, 소비재, 우주항공 분야 등 다양한 사례 발표를 접하고 디지털 디자인을 통한 비즈니스 경쟁력 제고 방안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동식 오토데스크코리아 사장은 "이번 '제조산업을 위한 오토데스크 유저 컨퍼런스 2010'을 통해 고객들과 소통하고 혁신적인 디자인 역량 확보를 통해 국내 제조산업의 미래에 대해 고민해보는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각 채널별로 다양한 소통의 창을 마련해 오토데스크 제품의 장점과 가치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국내 디자인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문의 : 02-3484-3400, www.autodesk.co.kr

KCC, '자원순환 선도기업'으로 선정...환경부 장관상 수상



KCC는 지난 6일 환경부가 주최한 제2회 자원순환의 날 기념식에서 '자원순환 선도기업'으로 선정되어 '환경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자원순환 선도기업'은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공정개선, 기술개발, 친환경원료 사용 등으로 사업장 폐기물 발생을 사전에 억제하고 유해물질 저감, 재활용 확대를 통해 환경보전과 저탄소 녹색성장에 기여한 기업을 대상으로 선정된다.

이날 행사에는 자원순환사회 형성에 공이 큰 기업과 민간인 등에게 총 16개의 정부 포상이 수여됐다. KCC는 사업장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증대를 통해 비용절감과 환경보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특히 KCC의 전주 실리콘공장은 지속적인 공정개선으로 폐기물을 효과적으로 감량하였고, 지속적으로 재활용처리 정책을 실시해 환경보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KCC 관계자는 "KCC 전주 실리콘 공장은 폐기물 배출량 감소를 위해 해당 폐기물의 발생공정인 MCS (MethylchloroSilane-유기실리콘 모노머) 반응공정을 집중적으로 개선했다"면서 "그 결과 ECM (Exhausted Contact Mass - 폐기물) 배출량을 연간 650톤 감소시켰으며 이를 통해 폐기물발생 저감비용을 연간 9,300여만 원, 공정개선으로 인한 원가절감으로 10억 7,000만 원 등 총 12억여 원의 원가절감 효과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각 생산 공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분리배출을 통한 재활용처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지난 2008년

58.8%에서 2009년 71.8%로 증가하였고 폐기물 발생 저감 활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폐기물 원단위 발생량이 15.4% 감소하는 등 한 해 동안 총 2억 2,000여만 원의 폐기물비용 저감효과 실적을 기록했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KCC는 2004년 ISO 14001 (환경경영시스템) 인증, 2005년 KS인증 (F4901 건축용실링재)을 획득했고, 친환경상품진흥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환경마크를 다수 (페인트, 보온단열재 및 흡음재, 바닥장식재, 벽 및 천장마감재 등) 획득해 친환경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해오고 있다.

KCC, '2010 한국사용품질지수 (KS-QEI)' 3개 부문 1위 수상



KCC가 지난 9월 1일, 한국표준협회 (KSA)에서 주관하고 한국품질경영학회가 후원하는 '2010 한국사용품질지수 (KS-QEI)' 인증수여식에서 창(호)세트, 수성도료, PVC(비닐계) 바닥재 등 3개 부문에서 1위를 차지하였다. 특히 창(호)세트 부문에서는 2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한국사용품질지수란 한국표준협회와 한국품질경영학회 지수연구회가 제품에 대한 고객의 만족도와 제품 특성을 반영하여 공동으로 개발한 측정모델로, 해당 기업의 제품을 구매하거나 이용한 경험자 및 제품 전문가를 대상으로 품질의 우수성 및 만족도를 조사하여 발표하는 종합지표이다.

KCC는 도료, 건축 내외장재, 유리, 창호, 바닥장식재, 특수소재제품 등 각종 건축, 산업 자재의 공급을 통해 한국 건축, 산업 분야의 발전을 선도해 왔다. KCC는

주력 사업 분야인 도료와 건축 내외장재, 유리 분야에서 실리콘, 소재산업에 이르기까지 국내 최고이자 세계적인 수준의 기술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며, 견실한 재무구조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계속해 나가고 있다.

KCC 관계자는 "한국사용품질지수는 소비자의 의견뿐만 아니라 해당 제품의 전문가 평가를 반영하므로 특히 조사 신뢰성이 높은 지수로 평가되고 있다. 이번 수상은 무엇보다 KCC 제품의 품질 우수성을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면서 "앞으로도 건축시장 트렌드를 주도하는 동시에 소비자의 니즈를 더욱 충족할 수 있도록 품질 경쟁력 강화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 문의 : KCC 고객상담실 080-022-8200, <http://www.kccworld.co.kr>